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김민중> <손지창>

듀오 '더 블루'

내달 활동 재개

1990년대 여성 팬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원조 꽃미남 듀오 '더 블루'(김민중·손지창)가 빠르면 4월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김민중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만을 느끼며", "그대와 함께" 등 더 블루의 듀엣곡과 내 솔로곡 '엔드리스 러브' 등 4곡을 담은 싱글의 녹음을 마쳤다"며 "4~5월부터 본격적으로 더 블루의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고지순한 사랑에 빠진 남자

천추태후 오른팔 강조 역 최재성

KBS 2TV 대하사극 '천추태후'에서 천추태후의 오른팔 무장 강조 역으로 출연 중인 최재성(45)은 "이런 순정과는 처음 연기하는 것 같다"며 웃었다.

'천추태후'의 수원 KBS 세트장에서 최근 만난 최재성은 "지금껏 맡아온 한 가지만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강조처럼 순정적인 사랑연기는 처음인 것 같다"며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의 오해성도 일생 한 여자를 바라봤지만 순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극중 강조는 천추태후를 어린 시절부터 보필한 무장으로 평생 그를 옆에서 지키며 마음속에 품는 남자다. 우직하고 웅맹하며 충성스러운 캐릭터로 어린 황보수(훗날 천추태후)가 경종에게 시집갔다가 아이를 낳고 궁에서 쫓겨난 뒤 다시 김치양과 사랑에 빠지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그를 묵묵히 지켜준다. 그는 강조의 사랑에 대해 "애절함을 넘어 처절하다"고 말했다. "애절함을 넘어 처절할 정도예요. 겨울에 호수의 얼음을 깨고 그 속으로 머리 디미는 격이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풀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재성은 그러나 강조의 사랑이 어느 멜로 드라마처럼 그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절함 넘어선 처절함 이런 순정과 연기는 처음”

“강조의 사랑은 지고지순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극적이고 암울한 시기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그 멜로의 선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위협스러운 상황에서 피어나는 사랑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는 "사극을 몇 번 해봤는데 정쟁, 야욕, 정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니까 인물들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강조도 결국 나중에는 난을 일으켜야 하는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면이 더 강조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연기에 대해 점수를 박하게 매겼다. "지금까지 강조를 맡아 썩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 쉬운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어렵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100%는 안 되겠지만 온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성과 천추태후 역의 체시라는 1991년 MBC TV '여명의 눈동자'에서 애절한 사랑을 나누며 화제를 모았다.

체시라는 최재성에 대해 "늘 든든한 오빠 같은 존재. '여명의 눈동자'부터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촬영장에서 항상 든직하고 힘이 되는 역할 해주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모험 나선 '에픽하이'

전 소속사로부터 독립한 힙합그룹 에픽하이(타블로, DJ투컷, 미쓰라진)가 가수 겸 작곡가 방식으로 음반을 유통한다.

이들은 '아티스트 포털 사이트'라는 이름을 내건 사이트 맵더솔닷컴(mapthesoul.com)을 21일 개설하고 이곳에서 27일 발매될 북앨범 '흔(魂): 맵 더 솔(Map the Soul)'을 단독 판매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라디오 헤드, 나인 인치 네일스, 마돈나 등 유명 가수들이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악을 팬들에게 공급한 바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국내 음악 시장에서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반을 판매할 경우 수익과 홍보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음반을 낼 때마다 1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에픽하이가 모험을 감행하는 데



가수-팬 직거래 음반 유통

사이트 개설하고 단독 판매

대해 DJ투컷은 "전통적인 유통과 판매망을 거치면 피할 수 없는 프리미엄이 붙게 돼 음반 판매 가격이 높아진다"며 "이번에는 책과 음반이 결합돼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자 거품을 빼는 새로운 방식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앨범인 '흔:맵 더 솔'에 대해서는 "책의 테마는 '창작'이라며 "음반의 시작부터 완성까지를 단계별로 기록했고, 여러 편의 수필과 사진, 노트를 통해 창작자인 우리가 영감을 풀었던 과정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음반 수록곡은 전 세계 음악팬들과의 교류를 위해 한글과 영어 등 2개 언어로 노래했으며, 세련되고 시적인 노랫말을 힙합 사운드에 충실하게 버무렸다.

이들은 '아티스트 포털 사이트' 개념에 대해 기존 공식 홈페이지처럼 프로모션, 이미지용이 아니라 포토타일링, 비디오 블로그,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가수와 팬이 직선으로 소통하는 장을 만들었다고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태양광주택발전사업국' (Solar Home Power Generation Project) with text about subsid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OPEN 축하 잔치' (OPEN Celebration Dinner) featuring photos of children and a list of participating organizations.